

이 보도자료는 2017. 7. 25. 배포 즉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공보담당관 제3차장검사 이동열
전화 02-530-4304

보도자료

2017. 7. 25.(화)

문의 : 공정거래조사부
전화 : 02-530-4156
팩스 : 02-3477-4104
주최임자 : 부장검사 이준식

제목 정우현 엠피그룹 회장의 불공정거래사건 수사 결과 - '을'의 눈물과 호소, '갑'의 致富와 구속 -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주)엠피그룹 정우현 前 회장의 불공정거래행위사건 등을 수사하여,

- '05. 11.부터 '17. 3.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57억원을 부당지원(소위 '통행세' 수취)하고,
- 이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ㄱ社'를 설립하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출점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 가맹점주들의 고혈로 이루어진 법인자금을 친인척 가공급여 지급 등을 통해 오너 일가 부 축적 수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 2017. 7. 24. 정우현 前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이 사건은 속칭 '을의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의 지위에 있는 정우현 회장 및 그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임

■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갑질' 횡포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고, 향후에도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임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

- 정우현 [69세, (주)엠피그룹 前 회장], 구속 기소
- A○○ [64세, 정우현의 동생], 불구속 기소
- B○○ [51세, (주)엠피그룹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 C○○ [54세, (주)엠피그룹 비서실장], 불구속 기소

● 공소사실 요지 (구체적인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는 별첨 참조)

- '05. 11.~'17. 3. 치즈 유통단계에 거래상 특별한 역할이 없는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어 약 5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동액 상당 횡령 [공정거래법위반, 특경가법위반(횡령)]
- '16. 7.~'17. 2.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ㄱ社'에 대해 식자재 조달 방해,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출점 [공정거래법위반, 업무방해]
- '07. 1.~'17. 6.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급여 지급하여 29억원 횡령하고, '08. 1.~'15. 3. 가맹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중 5억 7천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특경가법위반(횡령)]
- '07. 1.~'11. 12. 정우현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 6천만원 면제, 위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 미청구, 위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면서 가맹규약상 금지된 권리금 13억 1천만원 지급, 아들인 D○○의 개인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엠피그룹에 합계 39억원 6천만원 상당 손해를 가함 [특경가법위반(배임)]
- '12. 2.경 정우현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인 ㄴ社가 소유하는 신주인수권을 지인들에게 저가로 매도하여 ㄴ社에게 25억원 손해를 가함 [특경가법위반(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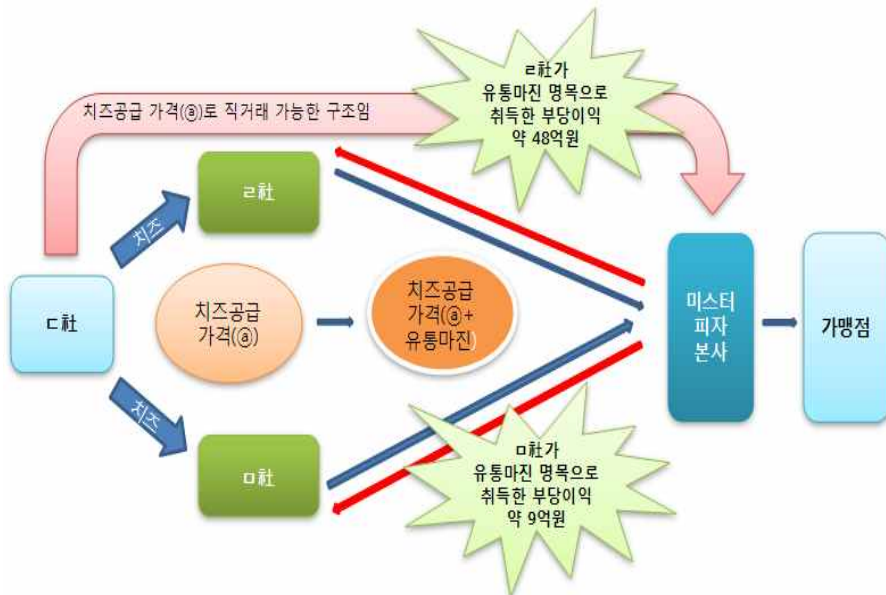
⇒ **합계 91.7억원 횡령, 64.6억원 배임**

2 주요 수사 경과

- '17. 6. ㄱ社 대표 E○○ 자살 관련 언론보도로 수사착수, 관련자 조사
- '17. 6. 21. (주)엠피그룹 본사 등 3개 업체 압수수색
- '17. 6. 28. (주)엠피그룹 관련 2개 비상장사 압수수색
- '17. 7. 6. 정우현 구속
 - ※ 정우현은 구속전피의자신문 포기의사를 밝히고 심문 불출석
- '17. 7. 13. ~ 14. (주)엠피그룹 컨설팅 업체 등 압수수색
- '17. 7. 24. 정우현 등 총 4명, (주)엠피그룹 기소

3 범행수법 및 경위

- 가맹점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치즈 통행세' 등 수취



- 정우현은 거래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ㄷ社, ㄹ社를 유통단계에 추가하여 동생이 '치즈 통행세' 57억원 상당을 수취하게 하고 동생 상당 횡령
 - ※ ㄷ社는 정우현의 동생 A○○이 실제 운영하였고, ㄹ社는 그 후 A○○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용한 법인임
 - ※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만들어 이익을 빼가는 '통행세' 수취는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임
- 불필요한 거래단계로 인한 유통마진은 치즈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임
 - ※ 가맹점주들은 '동생 배를 왜 가맹점주 고혈로?'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장기간 '치즈 통행세'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 가맹점주에게 전가된 '유통마진'을 취한 A○○은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임에도 11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함
- 한편, 정우현은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광고비를 걷은 후 광고와 무관한 가족점 워크샵 진행 비용,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음

- 정우현의 '갑질 경영'에 항의한 가맹점주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

- 정우현은 본사에 항의하고 탈퇴한 가맹점주는 반드시 망한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 미스터피자 前 가맹점주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협동조합 형태의 'ㄱ社'에 대하여 다각적 방법으로 보복할 것을 지시함
- 특히 탈퇴한 가맹점주가 오픈한 매장에 대하여 임직원들은 정우현에게 '초전박살 내겠다', '조속하게 추진하여 평정하겠다'고 보고하고,
- 'ㄱ社' 매장 운영을 준비하는 E○○을 비롯한 가맹점주들을 관리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ㄱ社' 매장의 개장 준비상황, 일일 매출액, 손님 수 등 현황을 보고받고,
- ㄱ社 매장 인근(직선거리 60미터, 직선거리 150미터)에 각 직영점을 출점한 후, 전국 최저가로 피자를 판매하고, 16,000원 치킨을 5천원에 판매하는 등 파격적 할인

※ 위 지역은 상권 쇠퇴 등으로 매출이 하락하여 오랜 기간 적자 상태로 운영되던 곳이고 직영점을 개설할 만큼 상징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지역이 아니므로 (주)엠피그룹이 직영점을 개설할 이유가 없었음

- 또한 '16. 9.~'17. 2. 연간 3-40억원의 소스를 미스터피자에 납품하고 있는 B社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B社 및 그 계열사인 C社로 하여금 'D社'에게 치즈, 소스 등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였음

※ 'D社'에 치즈를 공급하는 E社は 미스터피자의 거래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社에게 압력을 넣어 E社까지 공급을 중단하도록 함

- 뿐만 아니라, 'D社' 설립을 주도한 E○○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E○○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혐의없음 처분되자 항고를 제기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음

※ E○○은 위와 같은 고소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특히 자신을 믿고 F○○이 D社 이천점을 개설한 후, (주)엠피그룹에서 그 옆에 미스터피자 이천점을 보복출점하자 몹시 괴로워 하였다고 함

● **상장법인을 사유화 하여 유지한 일가의 호화생활**

- (주)엠피그룹은 오너 일가의 지분 이외에도 10만주 이하 보유 소액주주가 11,277명에 달하는 상장법인임에도, 사익 추구를 위해 기업을 사유화함

- 우선, 정우현은 딸, 사촌형제, 사돈 등 일가 친척 및 측근들에게 수년간 급여 및 차량, 법인카드 등을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였음

- 정우현은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 및 고급 호텔에서 수억원을 사용하였음

- 정우현 딸에게는 계열회사 임원으로 등재하여 수년간 수억원의 허위 급여, 법인카드, 외제차량을 제공하였으며, 심지어 딸이 가사도우미를 해외 여행에 동반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까지 (주)엠피그룹 직원으로 등재한 후 수년간 허위 급여를 지급하였음

- 정우현 아들의 장모까지도 계열회사 임원으로 등재하여 수년간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차량을 지급하였으며, 정우현의 아들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만 2억원을 사용하고 편의점에서 5천원 이하의 결제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

- 정우현은 (주)엠피그룹의 직영점을 차명 등으로 저가에 매수하여 총 5개의 가맹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고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들의 급여도 부담하지 않음

- 위 가맹점이 세무조사로 적발되고 매출이 하락하자 다시 본사로 하여금 이를 직영점으로 인수하도록 하면서, 이사회 승인 등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가맹규약상 인정되지 않는 권리금 13억원 상당을 본사로부터 지급받음

- 또한, 부회장인 아들이 개인 채무 9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아들에게 지급하던 월급을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였음

※ (주)엠피그룹 압수수색 당시 아들의 사무실에는 서류가 없었고, 컴퓨터에도 서류 파일이 없었으며, 아들도 (주)엠피그룹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고 진술함

- 한편,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社가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을 지인들에게 저가로 매도하여 L社에게 25억원의 손해를 입게 하기도 함

- (주)엠피그룹의 홍보라는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초상화 2점을 그려 (주)엠피그룹 회장실 등에 비치하였는데,

- 위 초상화 2점 제작에는 각 6,000만원, 3,000만원 합계 9,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되었고, 결국 (주)엠피그룹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오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되어 온 ‘갑질’ 경영의 완성판

-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자행하였으나, 공소시효도과로 기소범위 불포함
 - 2012. 발간한 자서전인 ‘나는 끈이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하여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강매하였고, 가맹점주들은 구매할 이유가 없는 자서전을 대량 구매하여 위 자서전은 실제 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올랐음
 - 2003.경부터 2009.경까지 미스터피자 가맹점의 실내 인테리어, 간판 등 공사 관련 총 공사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는데, 그 액수가 30억원에 이룸
- ※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3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매장 리뉴얼을 강제하기도 하고, 정우현의 친인척 혹은 측근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간판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하여 이익을 몰아주기도 함

4 수사의 의의 및 특징

● 검찰 착수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심을 거듭한 사건

-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본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으나, 한편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오히려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였음
- ※ 2016. 정우현 회장의 ‘갑질 폭행’ 사건으로 가맹점주들이 대신 사과하였으나, 들끓는 비난 여론으로 가맹점 매출이 반토막이 되었던 사례 재발 우려
- 그럼에도, ① 본건은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② 장기간 메아리 없는 시위를 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호소하였고, ③ 국회의원 중재 하에 ‘상생협약’이 체결되었고, ④ 2016.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되었으나 정우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중단되지 않아, ⑤ ‘을의 슬픈 외침’이 장기간 외면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탈퇴한 가맹점주가 자살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 검찰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여, 새로운 프랜차이즈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사 착수를 결단하였음

●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사

- 본건 수사로 인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조부 전 인력을 일시에 투입하여 수사 진행하였음
- ‘17. 6. 21. (주)엠피그룹 본사 압수수색 이후 13일만인 7. 3. 정우현을 조사하고, 다음 날인 7. 4.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였음

● 프랜차이즈 업계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수사

- 검찰은 프랜차이즈 업계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였음
- 본건 수사 이후,
 - ① 정우현의 비리에 대한 엠피그룹 및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각종 제보가 계속 들어왔고,
 - ② 각 언론사에서도 연일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 및 관행을 정비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 ※ 수사기간 동안 주요 일간지에 11개 사설 게재
 - ③ **미스터피자 본사**는 2017. 7. 20. 상생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스터피자 상생기본방향’을 협의하고,
 - ※ ‘미스터피자 상생기본방향’은 ① 윤리투명경영 ② 가족점 상생경영 ③ 실속 효율경영의 3원칙 하에 로열티 위주의 100% 오픈구매시스템 구축, 한계매장(순매출 월 3천만원 이하 매장, 현 119개점)에 대한 로열티 50% 감면 등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존재
 - ④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윤리경영 실천 강령’ 제정에 이어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하면서 업계 자정 노력을 다지고,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 ⑥ **국회**는 가맹사업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각종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여,
-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은 발 붙이기 어려운 생태계 조성

●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 하에 진행한 수사**

- 그동안 검찰은 일반적으로 공정위의 고발 후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왔으나, 본건은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한 후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여 진행하였음

※ 2017. 7. 4.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고, 공정위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수사에 협조함

※ 과거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심결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행사하였으나, 본건은 공정위의 심결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건임

- 향후 공정위와 검찰이 갑질 횡포 근절에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5 **향후 계획**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할 것임

【 별첨 】

피고인별 처분 내용

순번	성명	공소사실 요지(죄명)	처분
1	정우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11.~ 17. 3.까지 치즈유통단계에 거래상 특별한 역할이 없는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어 약 5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동역 상당 횡령 [공정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16. 7.~'17. 2.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ㄱ社'에 대해 식자재 조달 방해, 매장 인근에 직영점 보복출점 [공정거래법위반, 업무방해] ○ '07. 1.~'17. 6.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한 허위 급여지급 합계 29억원 상당 횡령, '08. 1.~'15. 3.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 7천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07. 1.~'11. 12. 차명 운영 가맹점 로열티 7억 6천만원 면제, 가맹점 파견 본사 직원 급여 14억원 미청구, 가맹점 직영점 전환시 금지된 권리금 13억 1천만원 지급, 이들의 개인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급여 대폭 인상, '12. 2. ㄴ社 소유 신주인수권을 지인들에게 저가 매도하여 25억원 손해 가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구속기소
2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11.~ 17. 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넣어 (주)엠펜그룹 자금 합계 57억원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불구속기소
3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7.~'17. 2.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ㄱ社'에 대해 식자재 조달 방해, 매장 인근에 직영점 보복출점 [업무방해] 	불구속기소
4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7.~'17. 2.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ㄱ社'에 대해 식자재 조달 방해, 매장 인근에 직영점 보복출점 [업무방해] 	불구속기소
5	(주)엠펜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정우현이 업무에 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양벌규정) 	불구속기소